

KIA 황대인, 복귀 시동 건다



긴 재활의 시간 끝내고 이달초 실전 재개

퓨처스 경기 멀티히트 등 공·수·주 활약

“부상 걱정 접어두고 적극적으로 뛰겠다”

“때를 기다리면서 칼을 갈고 있습니다.”

KIA 타이거즈 내야수 황대인이 다시 뛰다. 황대인은 지난해 3월 27일 시즌 세 번째 경기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긴 재활의 시간을 보냈다.

부상 이후 1군 복귀에 실패한 그는 마음을 굳게 다지면서 마무리캠프 참가를 자정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팔꿈치 통증으로 중도 귀국하면서 황대인의 2024시즌은 부상으로 시작해 부상으로 끝났다.

황대인이 다시 시동을 걸었다. 지난 10일 NC와의 퓨처스리그 경기를 통해 실전을 재개한 그는 10 경기를 소화했다.

성적은 26타수 12안타 7타점. 삼진으로 물러난 경우는 3타석에 그쳤고 12개의 볼넷을 골라내면서 눈아구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챔피언스필드로 장소를 바꿔 치른 20일 KT와의 경기에서는 공수주에서 만점 활약을 했다.

3타석에서 멀티히트를 기록한 황대인은 볼넷을 추가하면서 100%의 출루율을 기록했다. 공격적인 주루로 상대 야수진을 혼돈 황대인은 초반 흐름을 바꾸는 호수비도 선보였다.

2-0으로 앞선 2회초 1사 1-3루에서 1루수로 나선 황대인은 김철호의 총알타구를 낚아채면서 안타성 타구를 직선타로 둔갑시켰다. 황대인은 스타트

를 끊었던 주자까지 동시에 잡아내면서 선발 이호민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다.

황대인은 “당연히 해야 하는 플레이를 한 것이다. 워낙 팀 분위기가 좋다. 열심히 안 할 수 없는 분위기라서 더 열심히 하고 있다”며 “팀이 융화가 돼서 수비도 좋고, 투수도 좋고, 타격도 좋고 즐겁게 하다 보니까 좋은 플레이가 나오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퓨처스 선수단의 경기장 적응 등을 위해 챔피언스필드에서 경기를 한 것도 동기 부여가 됐다. 관중석도 무료 개방되면서 팬들이 야구장을 찾아 응원전을 펼치기도 했다.

“오랜만에 오니까 되게 좋았다”며 챔피언스필드를 찾은 소감을 밝힌 황대인은 “지금은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런 시기다. 지난해 개막전 뛰고 얼마 안 돼서 다쳤었다. 다치면 안 된다. 지난해에 너무 힘들었다. 부상 장상이 남아서 힘들었다”고 이야기했다.

‘부상’을 가장 경계하면서 시즌을 준비한 황대인은 완벽한 복귀를 목표로 힘든 재활의 시간을 넘겼다.

황대인은 “올해 스타트를 늦게 했는데 늦게 한 만큼 페이스가 잘 올라온 것 같다. 잔류군에서 정말 많이 훈련했다.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더 힘든 애

들, 노력하는 애들이 많았다”며 “따라서 하나나 페이스가 올라왔다”고 몸상태를 이야기했다.

황대인은 결과를 내는 데 집중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

황대인은 “시합 때 장타보다는 어떻게든 기록을 내려고 한다. 안타를 생산하고, 볼넷으로 출루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장타가 안 나와서 그렇지만 언제든 장타는 칠 수 있다고 자신해서 지금은 출루에 신경 쓰고 있다”며 “첫 경기에서 감이 안 좋았다. 크게 치다 보니까 진갑용 감독님과 최희섭 코치님이 가볍게 치라고 하셨다. 그 뒤로 재미가 붙어서 기록이 좋은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 다쳐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시합을 나가고 1군에도 올라갈 수 있다. 또 안 다치려고 소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개인 결과도 중요하지만 선배로서 팀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벌써 11년 차다”며 웃은 황대인은 “내가 먼저 후배들에게 다가가려고 한다. 해매고 있는 신인들 보면 나 어렸을 때를 보는 것 같아서 먼저 가고, 말도 해주려고 한다. 말 한마디면 달라진다. 나도 그렇게 선배들이 해줬다. 내리 사랑이다”고 말했다.

‘아빠’라는 자리도 황대인의 책임감을 더하게 한다. 황대인은 지난해 9월 아들을 얻었다.

황대인은 “결혼은 애를 낳고, 안 낳고도 다른 것 같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며 “책임감 있게 하겠다.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준비 잘하겠다. 지켜봐주시면 기대에 부응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황대인이 긴 재활을 끝내고 1군 복귀에 시동을 걸었다. 황대인이 20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T와의 퓨처스 경기에서 2회초 좋은 수비를 선보인 뒤 덕아웃으로 들어오고 있다.

“내일은 1군 무대” 챔필 뜨겁다

KIA, 퓨처스 경기 KT에 7-0 완승

오늘 오전 11시 경기…무료 개방

챔피언스필드가 폐기의 무대가 됐다.

안방에서 4연승을 찍은 KIA 타이거즈는 새로운 한 주 수월, 대구에서 승수 쌓기에 나선다. 선수단이 원정 6연전 길에 오른 20일 챔피언스필드가 북적거렸다.

KIA가 20일과 21일 예정된 KT와의 퓨처스 경기를 광주에서 치르기로 하면서 챔피언스필드가 바쁘게 돌아갔다. KIA가 관중석을 무료로 개방하면서 팬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다.

KIA는 퓨처스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1군 홈경기장을 경험하고, 경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챔피언스필드 경기를 준비했다. 팬들이 퓨처스 선수단의 경기를 가깝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했다.

KIA의 바람대로 퓨처스 선수단은 팬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1군 경기장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

부상에서 회복한 2025신인 이호민이 이날 3.2이닝을 소화하면서 속도를 올렸다. 이호민에 이어 유지성-이형범-최지민-홍원빈이 마운드에 올랐고 KIA 투수진은 9이닝을 무실점으로 처리했다.

계구 난조로 퓨처스에서 영점을 잡고 있는 최지민은 17개의 공으로 탈삼진 하나를 결들인 삼자범퇴를 기록했다.

방망이도 뜨거웠다. KIA는 1회부터 3개의 안타



20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T와의 퓨처스 경기에서 1회말 볼넷으로 출루한 KIA 정해원이 황대인의 적선타로 홈에 들어와 동료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를 기록하는 등 장타 14안타로 7점을 뽑아냈다.

수비도 완벽했다. 2회 1루수 황대인을 시작으로 3루수 윤도현, 2루수 최정용, 유격수 박민의 호수비가 이어지면서 팬들의 환호가 터져 나왔다.

공격적인 주루까지 이어가면서 공수주에서 KT를 압도한 KIA는 7-0 영봉승을 장식했다.

5번 타자 겸 2루수로 선발 출장한 최정용은 3안타와 함께 호수비 열전을 펼치면서 경기의 수훈 선

수가 됐다.

1군 못지않은 경기력을 보여준 퓨처스 선수단은 21일에도 챔피언스필드에서 승리를 노린다. 이 경기는 오전 11시 시작된다.

KIA는 또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예정된 소프트뱅크 3군과의 교류전도 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한다. 이 경기는 모두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 “10년 찾아 헤맨 우승 퍼즐 조각 맞출 것”

토트넘, 22일 유로파리그 결승서 맨유와 격돌

한국 축구 간판 손흥민(사진)이 드디어 ‘무관의 한’을 풀고 토트넘(잉글랜드)에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트로피를 안길까.

손흥민이 활약하는 토트넘은 22일 오전 4시 스페인 발바오의 산 마메스 경기장에서 열리는 2024-2025 UEL 결승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잉글랜드)와 맞붙는다.

토트넘은 맨유만 넘으면 2007-2008시즌 리그컵 우승 이후 17년 만에 공식 대회 ‘무관’에서 벗어난다.

손흥민도 지긋지긋하게 이어져 온 무관의 경력에 마침표를 찍는다.

2010년 함부르크에서 프로에 데뷔한 뒤 레버쿠젠(이상 독일)을 거쳐 2015년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은 그간 프로에서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다.

지금까지는 국가대표로 나선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게 손흥민의 유일한 우승 경력이다.

토트넘이 맨유를 꺾으면 손흥민은 1980년과

1988년 프랑크푸르트(독일)의 UEFA컵(유로파리그의 전신) 우승을 이끈 차범근 전 국가대표팀 감독에 이어 이 대회 우승을 맞본 또 한 명의 한국인 선수로 남는다.

차 전 감독과 손흥민 외 김동진과 이호가 제니트 상트페테르부르크(러시아) 소속으로 2008년 우승 축하를 든 바 있다.

손흥민은 발 부상으로 지난날 11일 프랑크푸르트와 UEL 8강 1차전 이후 한 달가량 실전을 소화하지 못했다.

리그 4경기를 포함해 7경기 연속 출전 선수 명단에서 빠진 손흥민은 지난 11일 크리스털 팰리스전 후반 13분 교체로 투입돼 복귀를 알렸고, 17일 애스턴 빌라전에는 선발로도 출격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애스턴 빌라전에서 한 차례 슈팅에 그쳤고 6번의 그라운드 볼 경기에서 모두 실패한 데다 3번 시도한 크로스로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는 등 완벽한 모습은 아니었다.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있는 손흥민은 우승 트로피를 향한 열망을 불태운다.

지난 12일 미디어 데이에서 손흥민은 “퍼즐을 만드는 데 모든 피스(조각)를 맞췄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피스가 부족한 것 같다. 그 피스를 찾아 10년 동안 헤맸는데 이번엔 그 퍼즐을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FC 박인혁·변준수 ‘베스트 11’ 선정

포항을 상대로 설욕전을 펼친 광주FC의 박인혁과 변준수가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0일 K리그1 14라운드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광주에서는 지난 18일 포항스틸러스와의 원정경기에서 결승골을 장식한 박인혁(FW)과 1-0 무실점 승리를 이끈 변준수(DF)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인혁은 0-0으로 맞선 후반 44분 최경록이 올린 프리킥을 헤더로 연결하면서 시즌 첫 골을 장식했다. 광주가 남은 시간을 실점 없이 마무리하면서 박인혁은 결승골의 주인공이 됐다.

변준수는 ‘난적’ 포항의 공세를 완벽하게 저지하면서 무실점 승리를 완성했다.

득점에서 뒤져 포항에 이어 6위에 자리했던 광주는 이날 승점 3점을 더하면서 5위로 올라섰다. 홈에서 4골을 몰아넣으면서 7경기 연속 무패를 이은 전남드래곤즈는 K리그2 12라운드 베스트팀에 선정됐다.

전남은 지난 18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충북청주FC와의 홈경기에서 발디비아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김예성의 추가골과 김도윤의 멀티골로 4-1 승리를 거뒀다.

잔디 교체 공사로 개막 후 원정 10연전을 펼쳤



박인혁

변준수

던 전남은 지난 11일 성남FC와 홈개막전 2-1 승리에 이어 홈에서 승리를 이으며 2위를 수성했다.

전반 29분 김예성의 패스를 받아 선제골을 장식한 ‘주장’ 발디비아(MF)와 후반 24분 득점도 기록한 김예성(MF)이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발디비아는 후반 44분에는 김도윤의 골을 도우면서 1골 1도움을 장식했다. 발디비아에 이어 레안드로의 패스도 득점으로 연결시키면서 3분 만에 멀티골을 장식한 김도윤(FW)도 베스트 11이 됐다.

전남의 경기는 베스트 매치로도 선정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